나눔의 소공동체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2014년 8월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59장 주께선 나의 피난처)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14,22-33)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14,22-33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8/10 연중 제19주일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말이나 글로 공개되면 끝까지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공개선언 효과'**라고 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연예인이 좋아'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은연중에라도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연예인을 좋게 보게 된다. 그리고 혹여 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비난할 경우에는 마치 자신이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변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말부터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

둘째,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로부터 '언행일치',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한'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무책임한', '신뢰할 수 없는', '책임감이 없는'과 같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발언한 말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공표하거나 말이나 글을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티를 좀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특별히 현대 사회의 많은 유혹들로부터 신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신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즉 티(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티 내서 좋을 게 뭐야.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티를 낸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식사 전후에 성호경을 긋는 것이 티 내는 것인가?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시간을 내 읽는 게 티 내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티 내는 것인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기분 좋게 티를 내며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16)"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어 티 내며 살아가자.

(수원교구 8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다음 하늘로 불려 올라가셨다는 신앙 교의에 따라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 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른 것입니다. 성모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 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입니다.

‘읽고 푸는 성경 퀴즈’

◈ 이 달에 읽을 말씀: 사무엘기 하권 21-24장

◈ 성경 문제

1. 다윗 시대에 연이어 기근이 든 까닭은 무엇입니까? (21,1)
   1)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
   2)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게을리 했기 때문.
   3) 다윗이 주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
   4) 다윗이 사울의 손자를 살려 두었기 때문.

2. 주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신 날 다윗이 주님께 부른 노래 중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적어 봅시다. (27,1-51)

3. 다윗이 거느린 세 명의 용사 이름을 적으시오. (23,8-11)

4. 주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진노하시어 내리신 재앙은 무엇입니까? (24,15)

◈ 삼종기도

삼종기도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알린 사건을 기념하여 바치는 기도이다. 삼종은 종을 세 번 친다는 뜻으로 이 종소리를 듣고 바치는 기도라고 해서 삼종기도라고 부른다. 종을 세 번씩 치는 이유는 삼종 기도문에 예수의 강생 구속의 현의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강생 구속이란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일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아침 6시, 낮12시, 저녁 6시 이렇게 하루에 세 번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